



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도시철도과장	문 혁	2133-4331
도시철도총괄팀장	김 신	2133-4333
담 당 자	강신애	2133-4334

서울시 서울교통공사(1~8호선)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

- 서울시·공사,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·단계별 비상수송대책 시행... “출근 시간 등 정상운영 지원”
- 평시대비 83% 수준 대체인력 1만3천명·시 직원 138명도 투입·지하철 수송기능 유지
- 파업 8일 이상 연장 시 단계별 대체수단 신속 투입... 시내버스 예비차량 투입 집중배차
- 비상수송대책 추진·혼잡도 관리 위한 안전 인력 배치 등 총력·조속한 운행 정상화·시민불편 최소화

-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(1~8호선) 노동조합이 11.30(수)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(서소문청사 1동 7층)를 구성하고 30일(수)부터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.
-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, 코레일, 버스 업계 및 자치구·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파업 상황별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한다.
 - 시 비상수송대책은 파업 및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파업 기간별로 1단계(D~D+6일, 7일간), 2단계(D+7일 이후)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.

-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영하고,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.7%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.
- 또한, 퇴직자·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대비 83%인 약 1만 3천여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하고, 시 직원 138명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.
- 파업이 8일 이상 연장될 시에도 출근 시간대는 평시 대비 100% 운행 하지만,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비혼잡 시간대 열차 운영을 평상시 대비 67.1~80.1% 수준으로 낮춰 운행한다.
 - 더불어,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. ▲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30~60분 연장 ▲지하철 혼잡역사 전세버스 배치운행 (교통공사 지원) ▲자치구 통근버스 운행 독려 등 대체 수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.
 - 시내버스 : 첨두시간대 집중배차 30~60분 연장(359개노선, 6,867대)
 - *30분 연장(승객 20% 증가시) : 단축 차량을 정상 전환(399대, 700회 증가)
 - 60분 연장(승객 40% 증가시) : 예비차량 투입 운행(277대, 693회 증가)
 - 개인택시 : 11.10.~ 12.31. 24시간 기 부제 해제
- 한편,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있는 만큼, 평상시 수준으로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에 집중할 예정이다. 특히 역사 혼잡도 관리를 위해 안전인력 배치 등에도 노력한다.

- 이밖에도 실시간 교통정보는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.
-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”이라며 “파업 이전 까지 노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길 바라며,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사 간 한 발씩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”고 밝혔다.